

장성군 첫 대규모 체육행사 전남도민체전 유치 성공

2025년 4~5월 중 나흘간...23개 종목 2만 2000여 선수 참여 준비 기획단 꾸려 경기장 배정, 교통·음식·숙박 등 대책 마련

장성군이 군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체육행사인 도민체전 유치가 성공했다. 장성군은 2025년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민체전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시범종목 포함 23개 종목 2만20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도내 최대 규모 체육행사다. 64회 도민체전은 오는 2025년 4~5월 중 나흘간 열릴 예정이다. 기간 장성군은 지난해 10월 유치신청 이후 같은 해 11월 열린 5차 전남종합체육대회 위원회에서 개최 후보지 1순위로 선정됐다. 올해 4월에는 현장조사 등 개최지 검증 절차를 거쳐 왔다. 그 결과 지난 25일 전남도체육회 이사회 결정으로 제64회 전남도민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전남의 관문이자 호남의 중심인 장성군은 오래전부터 도민체전 개최지로 물망에 올랐지만, 대규모 체육행사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장성군은 황룡강 부근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했다. 신축 종합운동장은 관람객 5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대한육상연맹이 인증한 400m 8레인 규모 육상트랙도 갖추고 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는 10개 종목 시설과 1224석을 갖춘 '홍길동 체육관'과 165석이 있는 '위라벨 돔구장' 등 체육시설이 밀집돼 있다. 장성군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장성호 하류 지역 체육공원에 축구, 야구 전용 경기장 각 1개, 겸용경기장 1개를 조성 중이다.

2025년 도민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12레인 규모 불링장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사격을 제외한 전통 종목 시합을 지역 내에서 치를 수 있다. 군은 '전남체전 준비 기획단'(테스크포스)을 꾸리고 전문가 조언을 받을 계획이다. 공공체육시설과 학교 체육관의 여건에 맞게 종목별로 경기장을 배정하고 대회를 연 다른 시·군의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경기장 시설을 보완하고 교통·음식·숙박 등 대책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한다. 이후 전남체전 대회 준비·운영 종합계획을 세우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 역사상 최초로 열리게 될 대규모 체육행사인 제64회 전남도민체전은 시·군 화합과 전남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5만 군민의 염원과 장성군 개최를 바라는 체육인들의 노고에 빛이난 소중한 대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이 군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체육행사인 도민체전 유치가 성공한 가운데 김한중 군수가 환하게 웃고 있다. <장성군 제공>

강진군 '병영 불금불파' 첫 행사 2000여 인파 몰렸다

관광객들 불고기·음악 공연 즐겨 20개동 텐트 300명 넘는 신청자 대학교 4곳과 청년 일자리 협약도

강진군이 연휴 동안 병영시장 일원에서 진행한 '병영 불금불파'에 20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29일 밝혔다. 불금불파는 '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의 줄임말이다. 연탄불고기로 유명한 병영시장 일원에서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펼쳐진다. 지난 26~27일 진행된 행사에서는 연탄불고기를 맛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진군은 야외 행사장에 식탁을 놓아 방문객의 편의를 높였다. 이 밖에도 파전과 쌀국수, 떡볶이, 닭꼬치 등을 맛볼 수 있는 푸드트럭에도 긴 줄이 이어졌다. 불금불파 개막식에는 진시몬, 목비 등 가수 축하공연과 DJ 무대가 펼쳐졌다. 강진군은 광주·전남 대학교 4곳의 관광·호텔경영 관련 학과와 '지역 관광산업 발전·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불금불파 행사가 펼쳐지는 병영면은 조선조 500년간 전라도와 제주를 관할한 육군총지휘부



강진 병영시장 일원에서 지난 26~27일 열린 '불금불파' 행사장에서 방문객들이 강진의 명물 '연탄불고기'를 맛보며 다양한 공연을 즐기고 있다. <강진군 제공>

'전라병영성'이 있었던 사적지이다. 한글묵 옛 담장과 하멜기념관, 흙골재에서 바라보는 수인산의 수려한 풍경까지 다양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강진군이 조성한 20개 동의 무료 텐트촌에는 3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려 늦은 밤까지 즐기려는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전통 등 만들기, 도자기 공

예 체험 등이 진행됐다. 강진군은 불금불파와 마량농토수산물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오토캠핑장·클럽 팜장 등을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진군은 매주 금요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오후 2시 30분, 4시 30분, 5시 30분 출발하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담양군 복지사업 공공부문 사례관리 간담회

담양군이 공공부문 복지사업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관리하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양군은 지난 25일 공공 복지사업 사례관리 담당자와 수행기관 담당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사례관리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는 복지영역 사업별 방향과 내용을 공유

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공부문 사례관리에는 의료급여, 통합 사례, 자활, 노인 맞춤 돌봄,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 보호), 아동 보호, 방문 건강 관리, 정신 건강 사례 관리 등 8개 서비스가 포함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료급여사례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수요에 맞춘 현장 중심 밀착형 보건복지 서비스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와 복지 사각지대 가구들의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각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내역을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담양군 관계자는 "건강한 지역사회는 자원의 발굴과 효과적인 사용이 중요한 만큼 공공부문 사례 관리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질적 향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담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목사골 천년의 시간 여행...나주시 문화재 야행 축제

6월 2~4일 나주읍성 일원서 8夜 테마 볼거리·즐길거리 다양

천년 목사골 고을의 역사를 품은 밤거리 문화재 축제가 6월 2일부터 4일까지 나주읍성 일원에서 열린다. 금성관 등 나주지역 문화재를 야간에도 개방해 초 여름밤 고즈넉한 낭만을 선사한다. '나주문화재 야행(夜行), 가자! 조선의 도시 천년의 시간여행'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축제는 '8夜(야)'를 주제로 밤낮으로 문화유산을 향유한다. 8夜는 밤에 비춰보는 문화재 '야경(夜景)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사(夜史) 공연 이야기', '야설(夜說) 밤에 걷는 거리', '야로(夜路) 진상품장사 이야기', '야시(夜市) 밤에 보는 그림', '야화(夜畵) 음식 이야기', '야식(夜食)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야숙(夜宿)'으로 구성됐다. 개막식은 다음달 2일 오후 7시 서성문, 정수루, 금성관 일대에서 '7대단법석 난장판'을 주제로 시작하며 축제 기간 읍성 돌담길 투어, 전통문화 체험행사, 로컬푸드·먹거리 판매, 거리·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지하에 열린 서성문 야의 캠핑 행사 모습. 나주읍성 수문장 교대식, 포도대장과 순라군 야행, 댄스-거리공연-게릴라콘서트, 나주목 사진 전시, 유·무형 문화재 명인 등 볼거리와 조선 보부상, 다듬이 소리, 사매기 골동품 판매 등 이색적인 체험도 선보인다. 나주목사나아, 한옥 게스트하우스, 서성문 잔디광장에서는 휘영청 달 밝은 밤하늘을 지붕 삼아 1박2일 숙박, 무박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의 보물인 원도심 문화재를 활용한 특색 있는 밤 축제로서 역사 문화관광 1번지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목 관아 복원·정비, 야간 경관 활성화, 나주전 생태 복원을 통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나주 밥상 먹거리 관광 명소화 등 통합적인 관광 정책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오늘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8767명에 화순상품권 60만원씩

화순군은 30일부터 농협은행 화순군지부와 지역농협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역 농어민 8767명이다. 이들은 1인당 60만원어치 화순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총 지급액은 52억6000만원이다. 지난달 화순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당초 화순군은 4월부터 화순사랑상품권 지급을 추진했지만,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지역화폐를 쓸 수 없게 되면서 관련 행정 절차를 밟았다. 군은 화순사랑상품권을 더 많은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한국조폐공사에 정책발행용 신규 발행

을 요청했다. 화순군은 읍·면 및 농협과 긴밀히 협조해 농어민 공익수당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30일부터 주소지 소속 지역농협과 농협은행 화순군지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아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으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자급의 역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며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장흥군이 베트남 달랏시 수출을 위한 선적식에서 수출 상품인 김·미역 가공식품을 선보이고 있다.

장흥군, 베트남 달랏시에 농특산물 수출

5년간 100만달러 규모 수출 계획

베트남 판로 넓히기에 나선 장흥군이 2000만원 규모 신규 농특산물 수출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된 품목은 장흥에서 난 김과 미역 등 해조류이다. 장흥군과 베트남 달랏시에 있는 '마이 꾸엔 트레이딩'은 이달 초 수출 협약을 맺고 지난 24일 첫 수출을 진행했다. 이 업체는 달랏시 청년마트에 이달 11일 '장흥군 특산물 판매센터'를 열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장흥 무산김과 표고버섯 등 농수산물 가공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장흥군 정남진장흥직거래지원센

터 달랏시에 있는 청년마트에도 두 차례에 걸쳐 농특산물을 수출했다. 군은 앞으로 5년간 100만달러(13억원) 상당 농특산물을 달랏시에 수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열리는 기간(7월29일~8월6일) 해외 구매담당자를 초청해 장흥 농특산물 판로를 넓힐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수출을 통해 장흥군 농특산물 판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기업 및 농가의 수출품목 일관화로 '장흥군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남아, 유럽 등지로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경찰 보이싱 피싱·마약 범죄 예방 교육

함평경찰이 지난 24일 함평 엑스포공원 주재관에서 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마약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함평경찰은 최근 발생한 시음행사를 가장한 마약음료 관련 청소년 마약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음료나 사탕 등을 절대로 먹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교수가 초청 강사로 참석 보이싱 피싱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신종 보이싱 피싱과 마약 범죄 수법에 대해 전남경찰청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도 상영했다. 윤창기 함평경찰서장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해 마약 등 피싱 범죄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싱 피싱 범죄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청소년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프로파일러 권일용(왼쪽 네번째) 교수 등이 예방교육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경찰서 제공>